



2020 두바이 엑스포 유치와 함께 요식업계도 급성장

두바이지사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식음료 분야

- 2년 뒤에 개최될 '2020 두바이 엑스포'를 위해 두바이 현지 요식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푸드 아울렛이 매일 두 세 개씩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식음료 부문은 두바이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두바이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년도 상반기 신생푸드 아울렛은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하면서 473개를 오픈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부분의 업체들은 두바이 내 신생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소매점, 레스토랑, 호텔, 카페, 출장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감시 플랫폼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

- 엑스포 기간 내 방문객들과 현지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는 두바이의 식품안전부 산하의 허가 및 응용 영양부처(Permits and Applied Nutrition Section)와 합동하여 식품 검사와 업체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엑스포 기간에는 한 시간에 약 85,000 여개의 식사가 200개의 음식점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 행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 플랫폼을 활용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앱에서 식당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메뉴, 영양소, 알러지 성분 함유 등의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자판기, 푸드트럭, 냉동고의 음식물도 모니터링의 대상이다.

두바이 식품시장 성장 주목해야

- 2020 엑스포 기간 동안 유입될 외국인과 현지인들의 수요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두바이 요식업계 및 식품업계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요식업계에서 6억 5,000만 디르함에 이르는 음식 공급과 20억 디르함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엑스포 개최에 따른 두바이 식품시장의 성장과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면, 중동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